

1950년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가 만들어낸 음악적 프로파간다, ‘상상적 세계 통합’*

신 혜 승
(서강대학교 강사)

1. 머리말: 상상적 세계 통합이란?

본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가 주도로 제작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선전과 계몽의 양상들을 음악관련 보도 양상을 통해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는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는 대중영화와 달리 국가가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일종의 계몽 선전영화였다. 《대한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 매체를 넘어, 국가 이데올로기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정부 프로파간다 매체로 기능했으며, 《문화영화》는 특정한 재현 방식을 통해 국민의 교양과 계몽에 기여하면서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중요한 미디어 콘텐츠로 기능했다.¹⁾ 이에 본 논문은 냉전기 국가 이데올로기 전파의 장으로서 국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통합하고자 했던 이 두 매체의 ‘대국민 시청각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음악 보도 양상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근대적 사회질서의 정착을 위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미국을 정점으로 한 세계 체제에 안정적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1078498).

1) 마정미, “제3공화국 프로파간다에 관한 역사적 고찰: 1960년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중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7/4 (2014), 107.

으로 편입하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²⁾ 여기에는 민족을 인종적, 언어적 속성은 물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산물로 재정의한 ‘일민주의’³⁾ 관점이 내포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승만 정권이 공산주의를 지도 원리로 삼은 북한을 남한과 동일한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다.⁴⁾ 즉 ‘반공 이념에 바탕을 둔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일민주의는 초기 이승만 정권의 주요 정책 이념이었으며,⁵⁾ 이러한 기조는 당시 대국민 시청각 교육의 기능을 수행했던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확산되었다.

당시 미국은 냉전 구도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적 연계를 재구성하려는 다양한 문화전략을 구상했다. 즉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문화적,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군사 강국으로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국제 사회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문화교류나 경제적·군사적 동맹을 넘어서 상호 의존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이상적인 세계 통합을 지향하는 ‘상상적 세계 통합’(global imaginary of integration)이라는 경향이 등장했다.⁶⁾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

- 2) 위경혜, “한국전쟁이후~1960년대 문화영화의 지역 재현과 지역의 지방화,” 『대중서사연구』 24 (2010), 340.
- 3)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이승만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명분으로 일민주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일민주의의 기본 이념은 안호상 등에 의해 더욱 이론화되어 남녀·상하 차별 없애기, 지방·파당 차별 없애기, 빈부·귀천 차별 없애기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일민주의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건국 직후의 지도 이념이 되지 못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7190> [2024년 8월 7일 접속].
- 4)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 문화영화의 지역 재현과 지역의 지방화,” 342.
- 5) 대한국민당 최고위원인 신익희는 1949년에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민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민주의란 언제부터 쓰인 말이며 누가 먼저 쓴 것인가? 루소의 천부인권설에 공명한 이승만 박사가 시창한 것인데 이는 민족은 한 개뿐이며 모든 정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 전부일 것이며 즉 유민주의(唯民主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1949년 1월 11일.
- 6) 특히 미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에서 비공산주의 가치와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클라인은 이러한 문화적 접근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 감정적 소속감을 형성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기능한다고 분석했다. Christina Klein,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23.

한 통합의 개념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냉전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미국인들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중문화는 통합의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냉전 시기 외교 전략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냉전 시기 미국이 취한 이 전략은 언뜻 보면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포괄하는 이상적인 문화 통합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 질서의 확립과 그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개념이었다. 미국은 전략 실천의 일환으로 비공산주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글로벌 연대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했다. 궁극적으로, 상상적 세계 통합은 1950년대 미국의 문화외교 전략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즉 이것은 미국 내에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일민주의'와 미국이 지향했던 '상상적 세계 통합' 개념이 냉전 시기 한국에서 어떻게 맞물려 작동했는지를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음악 관련 보도 양상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일민주의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 속에서 반공 이념을 기반으로 한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축이었다. 반면, 상상적 세계 통합은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자신을 국제 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문화전략이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나왔지만,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하나의 목표로 수렴된다. 즉 일민주의는 내적으로 한국 국민의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상상적 세계 통합 전략은 반공으로 단결된 한국을 미국 중심의 냉전 질서에 편입시키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승만 정권의 일민주의가 미국의 상상적 세계 통합 전략과 어떻게 교차하며 냉전 질서 속에서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국제적 위치를 재구성했는지를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음악관련 보도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냉전 시기 한국의 음악문화가 국가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냉전 질서 강화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뉴스》, 《문화영화》 등 국책 선전을 위한 미디어 연구는 주로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에서 선도되어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문학, 영화학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어 한국 현대사의 맥락이 보다 다채롭게 조명되고 있다. 즉 2000년대 이후의 연구물들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통해 한국의 현대사에서 국가 이미지 형성과 선전의 역할, 정치적 메시지의 전달 방식,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⁷⁾ 여기서 음악이라는 소재는 주로 문화연구의 한 예시로 다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박선영은 “1960년대 초 국립영화제작소의 ‘문화’와 ‘영화’: 군사정권의 공보정책과 문화영화”(2017)에서 군사정권의 공보 시책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제작된 《문화영화》 중에서 ‘문화’를 동원한 구체적 실례를 제시하고 분석했다.⁸⁾ 이 연구에서 아시아영화제, 산업박람회, 향토문화제

- 7) 이하나, “정부수립기~1950년대 문화영화와 국가정체성,” 『역사와 현실』 74 (2009), 519-557; 변재란, “대한뉴스, 문화영화, 근대적 기획으로서의 ‘가족계획’,” 『영화연구』 52 (2009), 207-235; 이하나, “1960년대 문화영화의 선전 전략,” 『한국근현대사연구』 52 (2010), 145-180;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 문화영화의 지역 재현과 지역의 지방화,” 『대중서사연구』 24 (2010), 337-364; 이순진, “한국전쟁 후 냉전의 논리와 식민지 기억의 재구성: 1950년대 문화영화에서 구축된 이승만 서사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3 (2010), 70-105; 이동기, 박종민, “대국민 정부 PR의 시대별 특성 연구: 1953년에서 1994년까지 <대한뉴스> 보도내용 분석,” 『한국언론학보』 55/2 (2011), 312-313; 차재영, 염찬희,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의 기록영화와 미국의 이미지 구축,” 『한국 언론학보』 56/1 (2012), 235-263; 마정미, “제3공화국 프로파간다에 관한 역사적 고찰: 1960년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중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7/4 (2014), 99-121; 함충범, “1960년대 초 한국 뉴스영화와 문화영화에 관한 연구(1961~1963): 국립영화제작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57 (2014), 183-208; 조준형,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정: 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52 (2014), 365-399; 이원지, “<대한뉴스> 선전정책의 언어적 전략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심혜경, “1960년대 문화영화와 젠더, 그리고 가족-국가,” 『현대영화연구』 31 (2018), 69-105; 김승, “남북한 선전영화의 이미지 재현 전략 비교연구: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2018), 364-371; 송지호,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책과 도자공예: 1960~1970년대 ‘대한뉴스’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도예연구』 27 (2018), 191-222; 홍민지, “뉴스영화를 통한 국가의 이미지 형성과 선전활동: 1950~1960년대 <대한뉴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박선영, “1960년대 문화영화 정책과 그 방향,” 『역사연구』 38 (2020), 85-117; 유소울, 정재완, “1950~70년대 <대한뉴스> 타이포그래피의 성격,” 『기초조형학연구』 101 (2020), 383-403.
- 8) 박선영, “1960년대 초 국립영화제작소의 ‘문화’와 ‘영화’: 군사정권의 공보정책과 문화영화,” 『이화사학연구』 54 (2017), 311-344.

등과 함께 ‘국제음악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한다. 즉 이 논문은 음악, 영화, 관광, 향토문화 등을 연결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시책을 조명해 냈다.

아울러, 본 논문이 연구 배경으로 삼고 있는 1950년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정치적 혼란이 국가의 정체성과 외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였다. 특히, 냉전이라는 글로벌 맥락 속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문화, 예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담론이 형성된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을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 이후 대중문화·예술사·지성사·제도사·젠더 연구 등으로 학문적 아젠다가 확장되는 경향을 보여준다.⁹⁾ 냉전 질서가 문화와 예술 영역에 미친 영향력을 포착하려 한 이러한 시도들은 전통적으로 냉전 연구를 수행해 왔던 정치사, 외교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문학, 영화, 예술 분야의 전공자들이 참여하여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연구는 냉전 시대의 문화적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음악계에서의 문화 냉전 연구는 민족주의 담론이나 국민개창운동과의 연관성

9) 염찬희, “1950년대 영화의 작동방식과 냉전문화의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29 (2006), 195-221; 권보드레,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1950-196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연쇄와 한국,” 『아세아연구』 54/2 (2011), 246-288; 김복순, “냉전 미학의 서사욕망과 대중감성의 젠더: 해방 후~1950년대까지의 신문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7 (2012), 107-145; 김려실, “댄스, 부채춤, USIS 영화: 문화냉전과 1950년대 USIS의 문화공보,” 『현대문학의 연구』 49 (2013), 341-375; 차재영, “냉전기 미국의 공공외교와 국가-언론 협력 관계: 미국무성의 ‘공동후원 언론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3 (2013), 87-108; 김미란, “문화 냉전기 한국 펜과 국제 문화 교류,” 『상허학보』 41 (2014), 329-370;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39 (2015), 221-276; 박연희, “제29차 도쿄 국제펜대회(1957)와 냉전문화사적 의미와 지평: 1950년대 후반 미국 문화원조와 동서문화교류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9 (2018), 189-220; 이상준, “아시아재단의 영화프로젝트와 1950년대 아시아의 문화냉전,” 『한국학연구』 48 (2018), 49-84; 박연희, “미군 심리전과 ‘잔류’의 냉전 서사: 모운숙의 한국전쟁 수기와 영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5 (2021), 307-343; 최진석, “한국 문화냉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인문과학』 89 (2021), 45-81; 권은혜, “냉전시대 글로벌 미국 가정 만들기: 1950년대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 『서양사론』 159 (2023), 9-36; 이지원, “냉전과 분단시대 한국의 어린이 인권 인식: 1950년대 <대한민국 어린이현장>을 중심으로,” 『학림』 52 (2023), 261-298; 홍순애, “국제적 냉전체제 하 반공주의의 연성화와 ‘스파이’ 담론의 대중화 전략: 1950년대 『아리랑』 잡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96 (2023), 347-374 등이 있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1950년대에 관한 연구는 음악과 국가정체성, 정치적 담론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며, 대중가요, 민속악, 국가주의,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경향을 보인다.¹⁰⁾ 1960~1970년대에 관한 연구는 박정희 정권의 국가 근대화 프로젝트와 음악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며, 음악정치, 공연예술, 국제화, 민족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이 시기 음악의 정치적 역할과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는 경향을 보인다.¹¹⁾ 이 가운데 문화 냉전의 시각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물로는 김희선과 김은영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김희선은 “문화냉전기 미국의 아시아음악 연구와 1960년대 국악의 국제화”(2019), “문화냉전기 국가 프로파간다와 공연 예술: 1960-70년대 리틀엔젤스 활동의 국제정치학”(2019), “문화냉전 시기 남북한 민족예술의 경합: 1950-70년대 해외공연을 중심으로”(2021), “냉전기 ‘민족예술’을 둘러싼 전유와 경합: 1964년 ‘삼천리 가무단’, ‘국립국악원’, ‘아리랑 가무단’의 해외공연을 중심으로”(2024)라는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 본격적인 문

-
- 10) 심재겸, “국민을 위한 노래: 해방 이후 국민가요운동의 전개와 국민 주체의 음악적 구상,” 『대중음악』 18 (2016), 100-157; 김민수, “1950년대 민속악계의 공연활동 고찰: 대한국악원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7 (2016), 145-186; 김희진, “즐거움과 국가: 1950년대 음악 교과서에 담긴 국가주의,” 『음악과 현실』 51 (2016), 157-182; 김민수, “1950년대 국악계의 동향: 국립국악원과 대한국악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57 (2019), 51-78; 신혜주, “1950년대 민족주의 담론과 전통음악: 제1공화국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63 (2019), 121-150; 최유준, “‘세련된’ 음악의 탄생: 1950년~1960년대 클래식 장르의 감정 정치,” 『이화음악논집』 23/4 (2019), 117-148; 김은영, “1950년대 양악작곡가들이 상상한 국민음악: ‘국민’과 ‘민족’ 사이에서,” 『음악과 현실』 58 (2019), 85-114; 김은영, “해방 10년, 음악계의 구성과 존재 방식,” 『음악과 현실』 63 (2022), 165-208; 김은영, “해방 후 음악장(場)의 형성과 나운영의 자리,” 『음악과 현실』 65 (2023), 37-74.
- 11) 송화숙, “박정희의 국가 근대화 프로젝트와 음악,” 『음악사연구』 1 (2012), 167-204; 송현민, “박정희 정권의 금지곡을 둘러싼 ‘감시와 처벌,’” 『문화과학』 73 (2013), 273-293; 김희선, “문화냉전기 미국의 아시아음악연구와 1960년대 국악의 국제화,” 『이화음악논집』 23/3 (2019), 121-164; 김희선, “문화냉전기 국가 프로파간다와 공연 예술: 1960-70년대 리틀엔젤스 활동의 국제정치학,” 『음악과 문화』 40 (2019), 143-183; 김은영, “1960-1970년대 음악정치: 박정희체제의 음악정책과 노래운동을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60 (2020), 87-118; 김희선, “문화냉전 시기 남북한 민족 예술의 경합: 1950-70년대 해외공연을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61 (2021), 187-239; 김희선, “리틀엔젤스예술단의 합창활동과 합창레퍼토리 연구,” 『음악과 현실』 64 (2022), 205-266; 김희선, “냉전기 ‘민족예술’을 둘러싼 전유와 경합: 1964년 <삼천리 가무단>, <국립국악원>, <아리랑 가무단>의 해외공연을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67 (2024), 141-201.

화 냉전 연구를 선보였으며, 김은영은 “냉전시기 음악연구의 현황과 전망”(2021)에서 음악학계의 연구는 여전히 특정 장르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머물고 있으며 동시대 예술사적 흐름과 공통의 담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대시기 음악연구의 방향에 대해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역사학계와 영화사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어 온 미디어 연구를 음악 분야에도 적용하여, 미디어 속 인물들에 대한, 그리고 미디어에 조명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이승만 정권의 일민주의와 미국의 상상적 세계 통합 전략이 냉전 시기 한국에서 국가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프로파간다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95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1961년 5.16 이전까지의 자료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한 1940년대 후반의 자료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95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정부가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음악관련 보도를 통해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II. 1950년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통한 대국민 시청각 교육

한국전쟁으로 인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던 이승만 정권은 전후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냉전의 반공 이념을 활용하여 통치 전략을 확립하고 이를 뉴스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전파해 나갔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와 미공보원의 주도로 제작된 뉴스영화인 《대한뉴스》¹²⁾와 《리버티 뉴스》,¹³⁾ 그리고 《문화영화》¹⁴⁾는 전

12) 《대한뉴스》는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청에 의해 《조선시보》라는 이름으로 생겨났다가 정부수립 이후 공보처 관할 《대한전진보》로 이름을 바꿔 부정기로 제작 배포되었다. 《대한뉴스》라는 명칭은 한국 전쟁 중인 195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1961년 6월 22일에 국립영화제작소가 신설되면서 농어촌용 《대한뉴스》, 해외동포용 뉴스영화 《한국소식》, 《고국소식》 등으로 다변화되기도 하고, 《시네마 순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기도 하다가 다시 《대한뉴스》로 환원된 후 1994년 12월 31일 2040호를 끝으로 사라졌다. “대한뉴스, 이름 바꾸고 계몽 필름으로 제작,” 『경향신문』, 1980년 2월 29일; “대한뉴스-문화영화 폐지,” 『조선일보』, 1994년 8월 20일; “대한뉴스 내일 종영,” 『동아일보』, 1994년 12월 30일; “대한뉴스 폐지 새해부터… 49년

쟁과 냉전에 대한 공식적이고 국가적인 기억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뉴스영화들은 TV 방송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1950년대 한국에서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주요 정치 도구로 작용했는데,¹⁵⁾ 뉴스영화를 통해 형성된 반공과 멸공 의식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국민들이 냉전체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이어가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50년대 국가의 공보 기능을 수행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선전 및 계몽의 양상을 정치적 목적과 사회적 반항을 기준으로 개관하여, 이를 후속 장에서 논의할 음악적 프로파간다 이해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1. 1956년 이전: 이념 선전의 초석

뉴스영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1956년 이전의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주요 이슈는 ‘민족’과 ‘반공’이었다.¹⁶⁾ 1950년대 《대한뉴스》는 총 1,686건으로, 이 중 1956년 이전(1955년까지)의 312건은 대부분 민족이나 반공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¹⁷⁾ 예를 들어, ‘제35회 3.1절 경축’(《대한뉴스》 제

만에,” 『경향신문』, 1994년 12월 30일; “‘대한뉴스’ 사라진다,” 『한겨레』, 1994년 12월 31일; 국가기록원, “우리나라 현대사의 성실한 기록자, 대한뉴스,”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koreaNews.do> [2024년 8월 12일 접속].

- 13) 《리버티 뉴스》는 주한 미공보원에서 제작한 보도 영화로 1952년 5월 16일부터 1967년 6월 1일까지 15년간 721호의 뉴스를 매주 제작하였는데, 10분 정도의 상영시간 중 내용의 절반은 미국의 해외 공보처가 제공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의 각 지역 공보관 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채워졌다. 차재영, 염찬희,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의 기록영화와 미국의 이미지 구축,” 『한국언론학보』 56/1 (2012), 246;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 문화영화의 지역 재현과 지역의 지방화,” 343.
- 14) 《문화영화》는 1948년 11월 4일 공보처 내에 공보국 영화과가 설치되고 1949년에는 국무총리령으로 공보처 내에 대한영화사가 설치되면서 《대한전진보》와 함께 제작되기 시작했다. 《문화영화》는 극장에서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영화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논픽션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기록영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movie/movieConcept01.do> [2024년 8월 12일 접속].
- 15) 당시 한국의 신문 발행 부수는 40만 부 정도에 불과하고 심층적인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디오 방송 역시 수신기 보급이 충분치 않았다. 차재영, 염찬희,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의 기록영화와 미국의 이미지 구축,” 『한국언론학보』 56/1 (2012), 247.
- 16)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https://theme.archives.go.kr/next/movie/times.do> [2024년 8월 13일 접속].

36호, 1954년 3월 31일) 기념식 보도에서는 주한 외교사절단 대표인 왕동원 중국대사가 애국 애족과 반공 유대 강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는데, 당시의 3.1절 기념식에서는 현재는 보기 어려운 순서로 미8군 사령관의 축하 기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 사령관의 축하와 앞서 언급한 외교사절단 대표 중국대사의 연설은 3.1절 기념식이 단순히 독립운동의 역사적 기념을 넘어 미국과의 연대와 반공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으로 기능했음을 알게 해준다.

또 다른 예로 ‘제3회 국립미술전람회’(《대한뉴스》 제49호, 1954년 11월 8일)에는 ‘민족’을 강조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954년 11월 1일에 열린 제3회 국립미술전람회(이하 국전)는 경복궁 내 국립미술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도에 “창연한 민족예술 [...] 날로 발전, 향상하는 민족예술의 우수성을 자랑했습니다.”라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등장한다.¹⁸⁾ 미술 전시회와 민족을 연결한 이러한 태도에는 예술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고양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강조하려는 《대한뉴스》의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이듬해 열린 제4회 국전 역시 《대한뉴스》의 주요 보도 소재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의 국전과는 달리 ‘리 대통령각하, 국전 시찰’(《대한뉴스》 제70호, 1955년 11월 11일)이

〈그림 1〉 국립미술전람회 관련 《대한뉴스》 영상



‘제3회 국립미술전람회’
《대한뉴스》 제49호,
1954년 11월 8일
전람회를 관람하는 ‘시민’들



‘리 대통령 각하, 국전 시찰’(제4회 국전)
《대한뉴스》 제70호, 1955년 11월 11일
전람회를 관람하는 ‘대통령’과
문교부장관 이하 관계관들

17) ‘대한뉴스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종합한 수치이다. https://www.ehistory.go.kr/koreanews/korea_news [2024년 8월 10일 접속].

18) “제3회 국립미술전람회,” 《대한뉴스》 제49호, 1954년 11월 8일,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93&mediadt=993&mediagbn=DH> [2024년 8월 13일 접속].

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즉 전시품을 일일이 관람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에 담음으로써, 국전의 초점이 '작품'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옮겨지게 하였다.

'민족'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는 《문화영화》의 대표적 예로 '민족의 성벽'(1947), '패자(覇者)의 수도'(1947)를 들 수 있다.¹⁹⁾ 이 영화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국가보다는 민족의 차원에서 개인과 집단의 노력을 강조하고 그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남한사회가 민족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공' 관련 《문화영화》로는 '여수순천반란사건'(1948), '무너진 삼팔선'(1949), '북한의 실정'(1949), '싸우는 대한민국'(1951) 등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작품들로 정부의 주요 이념이 '반공'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주제들이다.²⁰⁾

이처럼 해방 이후 1955년까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는 반공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을 강조하며 국가 수호와 재건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힘썼고, 그 중심에 대통령을 위치시켜 서사를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의 일원임을 미국에 대한 우호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했다. 즉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고자 했던 이 시기는 '반공', '민족',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개념에 집중한 시기로, 이러한 개념이 주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이 이 두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2. 1956년 이후: 반공 선전의 강화

1956년 2월, 공보처가 공보실로 격상되면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제작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즉 공보처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공보실로 승격

19) '민족의 성벽'(1947)은 군 창설 이전 경비대의 훈련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이들의 훈련 과정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의 성벽으로 명명되었다. '패자의 수도'(1947)는 1947년 4월에 열린 제51회 보스턴 마라톤대회 우승자인 서윤복 선수의 연습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이하나, "정부수립기~1950년대 문화영화와 국가정체성," 539.

20) 이들 작품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묘사하거나,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나, 소련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일본인들과의 좌담을 통해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산군의 불법 침략에 대항하여 싸우는 대한민국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며 UN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알리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나, "정부수립기~1950년대 문화영화와 국가정체성," 540-542.

되었고, 영화과는 공보실의 선전국 산하로 이관되면서, 연간 12편의 《대한뉴스》와 함께 《문화영화》 제작이 한층 전문화되어 국가정체성에 관한 내용도 더 구체화되어 갔다. 더욱이 1959년에는 외국영화 상영 시 문화영화와 뉴스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재조치가 시행됨으로써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제작과 배포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²¹⁾ 더불어 공보실에서는 1959년 4월 15일부터 ‘뉴스영화의 날’을 제정하여 《대한뉴스》, 《특보뉴스》, 《문화영화》 등을 시공관에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상영하도록 했는데,²²⁾ 이에 대한 《대한뉴스》의 보도 내용을 통해 당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대한뉴스》 제228호(1959년 8월 23일)는 ‘제9회 뉴스영화의 날’을 맞이하여 시공관을 찾은 시민들이 1만 2천 이상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당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는 국민들을 선동하고 체제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매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시공관에서의 상영에서도 대통령의 이미지를 뉴스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이 시기의 모든 업적이 이승만의 공적으로 인정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1959년에 제작된 《문화영화》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²³⁾은 이러한 사례의 정점에 놓여있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작된 것으로, 이승만을 독립과 항일의 상징으로 우상화해 놓고 있다.²⁴⁾

1956년부터 1959년 사이, 남한사회는 지식인과 관료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중간파 사상들이 정리되면서 보다 강력하게 반공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이념이

21) “뉴스, 문화영화 반드시 상영,” 『동아일보』, 1959년 4월 3일. 이 기사를 통해 외국영화 상영 시 뉴스 및 문화영화 각 1편 이상, 국산영화 상영 시는 뉴스영화 1편 이상을 상영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 “뉴스영화의 날 제정 일만엔 무료 공개,” 『경향신문』, 1959년 4월 13일.

23) 감독: 신상욱, 제작: 임화수, 출연: 김진규, 남궁원, 엄앵란, 황정순, 최남현 등, 제작사: 한국연예주식회사, 기획: 반공예술인단. <https://www.youtube.com/watch?v=fFexiGeQf98> [2024년 8월 20일 접속].

24) 이 영화에서 이승만은 정의롭고 인간적이며 리더십 있는 인물로, 단점 하나 없는 거의 완벽한 영웅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자유당이 제작비 지원을 결정하고 공보실에서 제작자인 임화수에게 4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1960년 5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제작비는 선거자금, 영화 「청년이승만」,” 『경향신문』, 1960년 5월 18일;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528> [2024년 8월 20일 접속].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민족 역시 더욱 부각되었으며, 남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이승만의 업적과 동일시되었다.²⁵⁾ 이러한 흐름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되었으며, 따라서 이 매체들은 남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이승만의 업적과 결부시켜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²⁶⁾

당시 정치 이념의 선전을 통한 체제 강화는 국책 선전도구인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제작 건수만 보아도 명확히 드러난다. 《문화영화》는 1957년을 기점으로 제작 편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56년 11편에서 1957년 22편으로 늘었고, 1960년까지 139편이 제작되었다. 즉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총 172편이 제작되었는데, 이는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48편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²⁷⁾ 1956년 이후 《문화영화》가 다룬 주요 이슈는 국토, 국가, 반공, 민족, 재건, 대통령, 경제 등이었다.²⁸⁾ 각 시기의 정치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문화영화》의 키워드가 다양화되었지만, 그중에서도 변함없이 반복되는 키워드는 민족, 반공, 그리고 대통령이었다.

《대한뉴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1950년대에 제작된 총 1,686건의 뉴스 중 1956년 이후에 제작된 뉴스는 81.5%에 해당하는 1,374건이다. 이 시기의 《대한뉴스》 역시 대부분 ‘민족’과 ‘반공’ 이슈를 다루면서 그 중심에 ‘대통령’을 보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57년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사이공에서 열린 ‘아시아 민족 반공박람회’(《대한뉴스》 제110호, 1957년 4월 25일)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 한국을 비롯해 자유중국(대만), 자유월남(남베트남), 필리핀 등이 참여한 박람회에서 한국관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하면서, 특히 전람회에 출품된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 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반공 아시아의 영도자이신 이 대통령 각하”²⁹⁾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통령의

25) 이하나, “정부수립기~1950년대 문화영화와 국가정체성,” 545-546.

26)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정권의 실제 모습은 이와는 달랐다. 이승만 정권은 공식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공식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했으나, 언론, 표현, 집회의 자유와 같은 이념의 핵심 사상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정치적 탄압과 억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손호철,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한국전쟁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5/1 (1996), 48.

27) 이하나, “정부수립기~1950년대 문화영화와 국가정체성,” 538의 <표 6> 참조.

28) 이하나, “정부수립기~1950년대 문화영화와 국가정체성,” 538.

29) “아시아민족 반공박람회,” 《대한뉴스》 제110호, 1957년 4월 25일, <https://www.kci.go.kr>

위상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반공 관련 《대한뉴스》와 결을 같이하여, 이 시기의 《문화영화》 역시 대한민국이 아시아 반공 전선의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반공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는 1959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민족 반공대회’³⁰⁾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대한뉴스》는 이를 반복적으로 보도하였고, 《문화영화》는 이 사건을 상세히 조명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주최국인 대한민국이 아시아 반공 전선의 핵심 국가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역할의 최전선에서 지도적 위치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그림 2〉 《대한뉴스》에서 보도된 시가행진의 사례들³¹⁾



‘북한 동포여 총궐기하라!’
《대한뉴스》 제95호,
1956년 10월 10일



‘6.25의 날’
《대한뉴스》 제120호,
1957년 6월 30일



‘티벳 반공 의거를 지원하자’
《대한뉴스》 제211호,
1959년 4월 26일

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544&mediadt=2966&mediagbn=DH [2024년 8월 13일 접속].

30) ‘제5차 아시아 민족 반공대회’는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제창으로 결성된 아시아 반공연맹의 연례대회로, 13개국 대표단과 미국을 포함한 8개국 옵서버가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이 대회에서는 아시아 반공연맹의 발전과 강령 채택, 회원국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제5차 아시아 민족 반공대회,” 《문화영화》 1959년,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10434&mediadt=22459&mediagbn=MH> [2024년 8월 13일 접속].

31) 첫 번째 영상은 북한 동포들의 반공 투쟁을 촉구하는 대회로, 대회가 끝난 후 대한부인회 여성들이 중앙청에서 세종로까지 트럭을 타고 시가행진을 하는 모습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부인회는 물론 한국 영화인, 북한 피난민들, 학생들이 총동원되었다. 가운데 영상은 한국 전쟁 7주년을 맞아 거행된 6.25 기념식 이후 기마대를 선두로 학생들의 시가행진이 이어지는 장면이며, 오른쪽 영상은 티벳 반공 의거를 지지하는 대한상이용사회와 조계사 승도들이 티벳 의거 성취 축원대회 이후 가두행진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1950년대 말에는 반공 감정과 민족적 정서를 고취시키는 각종 켈기대회와 시가행진이 빈번히 열렸다. 정부는 이러한 거리의 정치를 공산주의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형성하고 확립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 즉 켈기대회와 시가행진을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거리에서의 행동이 단순한 시위나 켈기를 넘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반공, 민족, 대통령에 대한 강조 외에도 《문화영화》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957년 상영된 ‘내강산 좋을시고’가 있는데, 이 영화는 민속음악과 전통무용을 소개하는 방식을 통해 《문화영화》의 형식적 변화를 보여주었다.³²⁾ 그 밖에도 1958년의 ‘아이스쇼’와 ‘순종황제 장례식’, 1959년의 ‘원각사개관 예술제’와 ‘한국을 찾아온 예술가들’ 등은 한국과 서구사회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동시에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부각시켜 이를 한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들이다. 《대한뉴스》에서도 역시 문화예술에 관한 주제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정치, 외교, 군사, 행정 뿐 아니라 문화예술에서 어떤 메시지가 정부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에 투영되어 있었는지를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II. 음악적 프로파간다 사례 분석: 반공 이념과 한미 관계 강화

이 장에서는 1950년대 ‘상상적 세계 통합’이라는 미국의 문화 외교 전략과 이승만 정권의 ‘일민주의’ 정책이 실제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한뉴스》의 경우 현재 ‘대한뉴스관’³³⁾에서 제공되는 총 225건의 음악 관련 영상을 검토하

32)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 문화영화의 지역 재현과 지역의 지방화,” 346.

33) “대한뉴스관,” https://www.ehistory.go.kr/koreanews/korea_news [2024년 8월 20일 접속]. 대한뉴스관에서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는 음악 분야의 225건의 영상 중에는 실제로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였다. 또한, 정치, 행정, 교육 등 다른 주제로 분류된 영상 중에서도 기념식, 문화계 소식, 군악대, 예술사절단 등 음악과 관련된 주제를 포함한 사례들도 추가로 선별하여 수집하였다. 결과적으로 1953년부터 1961년 5월 16일 이전까지의 영상 중 총 118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다음 <표 1>은 《대한뉴스》의 음악 관련 뉴스 데이터를 제작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대한뉴스》 중 음악 관련 보도 118건³⁴⁾

순번	호	제작연도	제목	순번	호	제작연도	제목	순번	호	제작연도	제목
1	23	1953. 07. 20	성기하사 6.25	41	104	1957. 02. 28	황가리 의거에 참가한 '형태'군 입영	80	165	1958. 05. 22	제5회 어린이 음악공공
2	25	1953. 08. 26	광복절(대한독립 1주년 기념)	42	104	1957. 02. 28	순직 공양문 증정할 제막식	81	166	1958. 06. 03	해외소식
3	27	1953. 10. 07	스웨덴소속 음악가들의 제1회 소년음악제	43	105	1957. 03. 04	국립서울대학교음악원 창립식	82	167	1958. 06. 10	제3회 한류음악
4	29	1954. 01. 04	전국 체육 대회 제14회	44	106	1957. 03. 16	상임이사 대학졸업 축하 연회	83	170	1958. 06. 30	피리니스트 협회 창립식
5	29	1954. 01. 04	YMCA 50주년 기념	45	110	1957. 04. 25	미 공군 군악대 내방 4월 24일	84	171	1958. 07. 07	한류음악 공중 연회
6	33	1954. 01. 14	제1회 전국학생발표회	46	111	1957. 04. 30	우리 예술 전진 사절단 동성 4개년 순회	85	178	1958. 06. 31	민중청년 공중연회
7	38	1954. 04. 01	제1회 전국학생발표회	47	111	1957. 04. 30	한류음악공중연회	86	183	1958. 10. 16	국악의 날
8	39	1954. 05. 31	미국으로 떠나는 어린이 음악단	48	112	1957. 05. 06	우리 예술전진사절단, 시야공에서 흥공연	87	184	1958. 10. 13	문화계 소식
9	40	1954. 05. 07	제1회 전국학생발표회	49	112	1957. 05. 06	제3회 아만아날 행사	88	185	1958. 10. 20	문화계 소식
10	43	1954. 08. 20	어린이 음악단 귀국	50	113	1957. 05. 13	예술사절단 귀국 축하	89	186	1958. 10. 27	YMCA 50주년 기념식
11	44	1954. 08. 28	미군문화원(현)가곡제(현)가곡제(현)가곡제	51	114	1957. 05. 20	동남아시아 예술사절단 귀국	90	189	1958. 11. 17	문화계 소식
12	45	1954. 09. 09	대통령 상훈 제수연	52	116	1957. 06. 02	오케라 가수 '백제' 내방	91	194	1958. 12. 23	문화계 소식
13	45	1954. 09. 09	이대원 장성 귀국	53	117	1957. 06. 10	친원대교 발원 대모	92	195	1959. 01. 05	문화사 개관
14	46	1954. 09. 22	민중의 창성 1주년	54	118	1957. 06. 16	미국인 발	93	203	1959. 03. 04	제4회 3일장
15	46	1954. 09. 22	제 6회 방공날	55	120	1957. 06. 30	[한국전쟁 7주년] 6.25의 날	94	205	1959. 03. 17	이대원 오케라단 공연
16	48	1954. 10. 26	국립합창단 예술공연	56	121	1957. 07. 07	전UN군 시야공과 전 미방군 시야공의 환송식	95	206	1959. 03. 23	골든게이트 4층창당 공연
17	51	1955. 01. 01	강화 남도 시무식	57	124	1957. 07. 30	시인 이대원 발	96	208	1959. 04. 05	제5회 3일장
18	51	1955. 01. 01	미국으로 선물을 받는 어린이 합창단	58	125	1957. 08. 24	고아들의 음악연회	97	214	1959. 05. 18	미국 국경일 기념
19	52	1955. 01. 08	미국인 발 6.25의 날	59	127	1957. 08. 19	공복절 12주년 기념식	98	223	1959. 07. 16	중앙공보관 동 돌 말
20	53	1955. 03. 10	제 1기 기공 현로 학생 졸업	60	127	1957. 08. 19	시인 발	99	226	1959. 08. 09	서울-광주도로 부설 기술식
21	56	1955. 05. 18	광무대 소식	61	127	1957. 08. 19	한국인 발	100	226	1959. 08. 09	지방청 개청식
22	58	1955. 06. 08	NBC 교향악단 내방	62	128	1957. 08. 24	소호스 소식	101	227	1959. 08. 16	공복절 14주년 기념식
23	59	1955. 07. 04	미국 음악가 내방	63	129	1957. 08. 31	수제반 주교 음악회	102	229	1959. 08. 30	방송문화상 시상
24	61	1955. 07. 25	국악 소식	64	130	1957. 09. 10	후지산악시 시인발 공연	103	230	1959. 09. 07	8.15 순국 4주년 기념
25	61	1955. 07. 25	장문대 소식	65	131	1957. 09. 16	이리 시민의 발	104	252	1960. 02. 18	서울 철도 여공축제
26	64	1955. 08. 30	T33 전투기 입수	66	133	1957. 09. 30	마리안 엔디슨 역사 내방	105	261	1960. 04. 22	뽀얀나 야데나 축제 행창단
27	65	1955. 09. 17	국악 소식	67	134	1957. 10. 06	유엔주 총사절단 이후 방문 음악회	106	264	1960. 05. 08	외국관광객 유치위원회
28	67	1955. 09. 30	교육총발행 창성 1주년 기념식	68	137	1957. 10. 28	제4회 방송 어린이 공물	107	266	1960. 05. 22	4.19 순국제 4주년 추모행위
29	68	1955. 10. 15	리 대통령의 동상 기증식 귀국	69	149	1958. 01. 28	한미 친선음악회	108	269	1960. 06. 12	국악 연회
30	72	1955. 12. 12	국악 소식	70	153	1958. 02. 25	예술단 광무대 내방	109	270	1960. 07. 01	아이 실로와 아레 우레 그날을
31	74	1956. 01. 01	국악 소식	71	153	1958. 02. 25	제4회 예술사절단 동남아시아	110	277	1960. 08. 15	광복 15년
32	80	1956. 04. 04	서울문화재단 문화상 시상	72	155	1958. 03. 11	병아리 창성 음악회	111	279	1960. 08. 30	방송 문화상 시상
34	83	1956. 05. 05	미군교향악단 내방	73	157	1958. 03. 25	홍남야 예술사절단 소식	112	288	1960. 11. 10	해외소식
35	84	1956. 05. 05	모스교향악단 내방	74	158	1958. 04. 01	홍남야 예술사절단 소식(홍남야)	113	291	1960. 12. 02	시절 문화상 시상
36	86	1956. 06. 06	6.25 추모 기념	75	159	1958. 04. 08	동남야 예술사절단 소식(홍남야)	114	291	1960. 12. 02	방송 문화상 시상
37	87	1956. 07. 07	주한 미국대사 신임장 행차식	76	159	1958. 04. 08	보통인 독주회	115	297	1961. 01. 21	방송 문화상 시상
38	93	1956. 10. 10	HKA를 찾아서	77	161	1958. 04. 22	예술사절단 지방순회	116	302	1961. 02. 23	한국공공연극단 창립 공연
39	101	1957. 01. 29	국악연회 창성식	78	161	1958. 04. 22	국악연회 창성식	117	309	1961. 04. 14	문화계 소식
40	101	1957. 01. 25	국 지향적 창공 시화장 열수	79	164	1958. 05. 15	미 공군 군악대 연주회	118	310	1961. 05. 21	4.19의 날

《대한뉴스》의 음악 관련 보도 118건에는 음악 행사와 음악 교류 등 음악 문화 자체에 대한 보도와 함께 공공 행사 및 외국 인사 방문 시 음악이 사용된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크게 '미국과의 관계 강화', '반공주의와 국가의 정체성 강화', '문화적 연대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한미 친선음악회와 같은 외교 및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반공주의와 국가의 정체성 강화는 기념식 및 공공 행사에서 반공 이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문화적 연대와 사회적 통합은 다양한 음악 행사와 지역 문화 축제를 통해 촉진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전통음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음악교육, 음악교류 등을 포괄하며, 내용은

34) <표 1>에서 색상으로 구분된 항목들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사례들이다.

주로 대통령의 업적이거나 공식 활동과 연결되어 다루어졌다.

《문화영화》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디어 제작의 주체가 공보처에서 공보실로 격상된 이후인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국가기록원의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³⁵⁾을 통해 1961년 5월 16일 이전까지 문화, 교육, 정치, 사회, 경제, 보건 영역에서 107건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더불어 ‘한국근현대영상아카이브’³⁶⁾를 통해 추가적으로 184건의 영상기록을 파악했다. 두 아카이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상은 중복된 자료들을 포함하여 총 291건에 이르는데, 이 영상기록 가운데 음악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36건의 영상을 목록화하였다. <표 2>의 목록 가운데, ‘광복절 노래’, ‘무궁화 새로 피네’, ‘현충의 노래’, ‘공명선거의 노래’, ‘국토건설대의 노래’, ‘국민가요’[새나라는 부른다], ‘새살림의 노래’, ‘새아침’은 특정 주제의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 제작된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들이다.

〈표 2〉 《문화영화》 중 음악문화 관련 데이터 36건

순번	제작연도	제목	순번	제작연도	제목
1	1957	김백봉여사 무용	19	1959	한국을 찾아온 예술가들
2	1957	내 강산 줄을시고	20	1959	새로운 교육
3	1957	자유의 소리	21	1959	4292년을 뒤돌아보다
4	1958	교육 문화	22	1959	현충의 노래
5	1958	광복절 노래	23	1960	서독 공중서커스
6	1958	문화	24	1960	스페인무용단
7	1958	민속예술제	25	1960	한국교향환상곡
8	1958	아이스쇼	26	1960	행복의 문
9	1958	우리 예술사절단 동남아로	27	1960	흘러간 옛 노래
10	1958	제3회 아세아올림픽	28	1960	무궁화 새로피네
11	1958	3.1절 특보	29	1960	공명선거의 노래
12	1958	순종황제 장례식	30	1960	한국을 찾아온 예술가들
13	1958	약진 10년: 교육, 문화, 국방	31	1961	민요잔치
14	1958	세계의 이모저모	32	1961	반들자 3.1정신
15	1958	자유의 빛 터키	33	1961	국토건설대의 노래
16	1958	터키 국회의장 방한	34	1961	국민가요
17	1959	신춘송가	35	1961	새 살림의 노래
18	1959	원각사개관 예술제	36	1961	새아침

35) “문화영화,” <https://theme.archives.go.kr/next/movie/viewMovieList.do> [2024년 8월 20일 접속].

36) “한국근현대영상아카이브,” [http://kfilm.khistory.org/?mod=prod&PATTEN_CLSS=&KIND_&sort=left\(MOVIE.PROD_DATE,4\)&orderby=asc&recnum=20&ktyw=&PROD_DATE=1950](http://kfilm.khistory.org/?mod=prod&PATTEN_CLSS=&KIND_&sort=left(MOVIE.PROD_DATE,4)&orderby=asc&recnum=20&ktyw=&PROD_DATE=1950) [2024년 8월 20일 접속].

36건의 《문화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한 국가 재건 노력’, ‘민족예술의 발굴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강화’, ‘서양음악의 영향력과 전통음악의 재조명’이 주요 이슈였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이 두 매체를 통한 음악 관련 보도는 반공, 민족,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개념들을 음악적 표현과 문화적 메시지로 변환해 대중의 의식 속에 심어주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즉 반공과 친미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시책이 음악을 통해 ‘민족예술의 강화’와 ‘서양음악의 영향력’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것은 냉전 시기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정치적·외교적 입장을 강화하며, 국제적 연대와 문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한 예로, ‘미국 음악가 내방’³⁷⁾(《대한뉴스》 제59호, 1955년 7월 4일)은 미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내방한 4명의 음악가 중 피아니스트인 세이모어 번스타인(Seymour Bernstein, 1927-)³⁸⁾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서 반공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인물의 한국에서의 음악 활동은 한미 양국의 반공 유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러한 사례를 포함하여, 당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가 음악 보도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주요 메시지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냉전 시기 한국이 반공 이념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통해 정치적·외교적 입장을 어떻게 공고히 하려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냉전기 한국 사회에서 음악과 문화가 외교 및 정치적 목적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37) 1955년 6월 13일, 미 국무성의 후원과 보조를 얻어 미국의 저명한 현역 음악가 다섯 명이 내한했는데, 함께 내한한 연주자는 케네스 골든(바이올린), 리차드 케이(첼로), 미셸 나야지(오보에), 사이벨(호른)이었으며 이들은 두 달간 한국에 머물면서 음악회는 물론 마스터클래스를 비롯한 음악 강습회를 개최했다. “미국음악가들 내한, 화려해질 악단,” 『동아일보』, 1955년 5월 3일.

38)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이력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이다. 강도 높은 보병 훈련을 마친 후 한국에 배치된 그는 최전방을 순회하며 한국군, 미군, 유엔 연합군을 위해 100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했다. 그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연주회는 매번 병사들로 가득했고, 연주회가 끝날 때쯤엔 많은 이들이 울고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1811071407001> [2024년 8월 24일 접속].

구체적인 사례로 1954년 미국원조를 받기 위한 '어린이 음악사절단'의 모금 활동과, 한동일이 미군의 후원하에 유학을 떠나 천재 소년 피아니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증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음악관련 보도의 연도별 주요 내용

연도	주요 키워드	주요 인물 및 단체	비고
1953~1956	미국원조, 유학, 대통령, 한미재단, 한미음악교류, 어린이, 국위선양	한동일, 이희춘, 안병원, 어린이 음악단, 안익태, 세이모어 번스타인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경제적·문화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 강화
1957	전쟁고아, 위령, 국제친선(한국-터키), 어린이, 대통령, 국악, 내한공연, 수재구호	리차드 터커, 마리아 앤더슨	한국전쟁 여파 속에서 국제적 연대와 문화교류를 통한 이미지 제고
1958	한미친선, 반공, 동남아, 예술사절단, 내한공연, 고아들, 어린이, 대통령, 국악	임원식, 김백봉, 브리지트 H. 드 보퐁, 한동일, 반 클라이번, 김자경	정부수립 10주년, 반공주의와 국제적 친선 강화
1959	원각사, 내한공연, 충현탑, 반공	이탈리아 오페라단, 미국 흑인 4중창단	문화외교 및 반공 이념 강조, 주요 기념행사와 연계
1960	반공유대강화, 위안음악회, 국악, 우호증진(한국-필리핀)	정명화, 서울교향악단, 이인영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정치적 격변기에 반공주의 유대 강화
1961(5.16 이전)	한국교향악단, 4.19 기념식, 자선과 구호, 위안음악회	오정주, 박태준, 이흥렬	5.16 군사정변 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음악을 통한 사회 통합 시도

1. 미국원조의 상징, 어린이 음악사절단

《대한뉴스》는 1954년 5월 어린이 음악사절단의 방미 소식을 시작으로, 이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모금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여 국가로부터 환영받는 과정을 3편의 뉴스영화로 담아냈다.

〈그림 3〉 어린이 음악사절단 관련 《대한뉴스》 3편의 영상 제목



《대한뉴스》 제39호,
1954년 5월 31일

《대한뉴스》 제43호,
1954년 8월 20일

《대한뉴스》 제51호,
1955년 1월 1일

첫 번째 영상인 ‘미국으로 떠나는 어린이 음악단’에서는 1954년 4월 8일, 한미재단이 주관하는 미국의 대(對)한 천만 달러 원조기금 모금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어린이 음악사절단 25명이 단장 안병원의 인솔하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뉴스의 실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사명을 받아 멀리 미국으로 건너가는 우리나라 어린이 음악사절단. 우리를 도와주는 우방 미국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한미재단에서 전개하는 미국의 대한 천만 달러 원조기금 모집운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같이 귀여운 어린이 25명으로 구성되는 이 어린이 음악단은 단장 안병원씨 인솔하에 4월 8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공항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³⁹⁾

두 번째 영상 ‘어린이 음악단 귀국’은 미국 42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한 어린이 음악단이 90여 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린이들의 노고를 칭찬했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귀국 환영대회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세 번째 영상 ‘미국의 선물을 받는 어린이 합창단’에는 미국 순회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어린이 합창단에게 프란체스카 여사가 선물을 나누어주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일련의 세 영상을 통해, 한국전쟁 중 설립된 비공식 원조 기관인 ‘한미재단’⁴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952년에 발족한 이후 1955년까지 가장 활발

39) 《대한뉴스》 제39호, 1954년 5월 31일. 밑줄 필자 강조.

40) 한미재단은 냉전기 한미관계의 동태적 변모를 잘 드러내 주는 미국의 민간재단이다. 비정치, 비영리, 비종교를 표방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정권적 이해가 부합된

하게 활동했던 한미재단은 1953년 3월과 8월에 한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수행했다. 사절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자문위원들이 원조가 필요한 분야와 규모를 선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부받은 기금과 물품은 한국의 보건, 사회복지, 교육 영역에 전달되었다.⁴¹⁾ 다른 재단들이 주로 물품 지원에 집중한 반면, 한미재단은 되도록 ‘기금’을 마련해 이미 구축된 여러 원조 기관이나 관련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⁴²⁾ 이에 많은 모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1953년 6월과 195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미국 내 기금 모금 캠페인이 벌어졌으며, 2차 캠페인부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냉전 선전 정책이 개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정부는 군사비 삭감과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돌입한 한국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공식 원조 기관인 한미재단의 대(對)한 원조 활동은 미국 내 여론을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의도로 진행된 2차 기금 모금 캠페인은 ‘한국구호열차’(Korean Relief Train),⁴³⁾ ‘한국을 위한 행군’(March for Korea)⁴⁴⁾과 같은 대규모 프

냉전정책의 산물로 1952년 8월 백악관에서 발족된 후 25년간(1952~1976) 약 5천만 달러를 한국에 원조함으로써 한국의 전후 재건과 근대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봉범, “한미재단(American Korean Foundation), 냉전과 한미 하방연대,” 『한국학연구』 43 (2016), 205.

- 41) 1차 사절단은 한국의 보건과 사회사업을 시찰하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2차 사절단은 사회, 경제 문제를 폭넓게 살피고 상당한 양의 기부금을 한국에 즉시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방문했다. 이소라,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1-32.
- 42) 이것은 기존에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비판받던 구호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긴급한 한국 상황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이소라,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 34-35.
- 43) ‘한국구호열차’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열차의 협조 요청을 받은 미국열차협회가 약 백만 달러 규모의 운송비를 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는 열차를 활용해 미국 시민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그들의 기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열차가 각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며, 한국의 전쟁 피해 상황을 사진과 영상, 전시물 등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소라,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 62.
- 44) ‘한국을 위한 행군’에는 미국의 200만 재향군인 조직이 동원되었다. 재향군인들은 열흘간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제복을 갖춰 입고 미국 가정을 방문해 ‘Scroll of Salute’라는 이름의 명단에 사인을 받으며 한국을 위한 기부를 요청했다. 동시에 이 시간 동안 모든 미디어가 이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총출동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로젝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만 달러의 현금과 6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어린이’들의 이미지와 전쟁 피해 복구 상황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시민들의 ‘동정’을 유도했다. 또한 한국인의 자립적인 노력을 부각시켜 기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확신시켰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미재단의 원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냉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는 한국의 역할이 미국의 냉전 전략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대중에게 기부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미국 대중들은 냉전과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이처럼 한미재단의 2차 기금 모금 캠페인은 아이젠하워 정부의 냉전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미국 사회에 냉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상적 세계 통합’이라는 전략은 미국 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 캠페인은 대중의 기부와 지지를 통해 냉전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국 대중들이 냉전 질서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한편, 이승만은 미국의 2차 기금 모금 캠페인에 맞춰 어린이 합창단의 미국 순회를 추진했다. 어린이 합창단의 방미는 국내는 물론 미국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으며, 이승만은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의 불안정한 상황을 수습하고자 했다. 즉 어린이 합창단의 미국 순회공연은 국내에서는 원조를 통한 미국의 인도적 이미지를, 미국 대중에게는 전후 회복 중인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에, 국내 언론들은 어린이 합창단의 성공적인 미국 순회를 이승만의 외교 성과로 보도하였고, 동시에 미국의 자선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1954년 4월 13일자 『조선일보』는 한국을 떠난 꼬마 음악사절단이 일본 도쿄에 도착한 사실을 전하면서 “한미재단 후원으로 도미한 소년단들은 식량과 의류를 사서 나라에 이바지하고자 앞으로 노래를 통한 모금 운동을 전개할 것”⁴⁵⁾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특히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서울신문』은 어린이 음악단의 방미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다루었는데, ‘꼬마합창단’이라는 연속 시리즈를 만들어 그들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승만의 노력과 그 성과를 강조했

은 이때 라디오와 TV쇼에 직접 등장해 한미재단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소라,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 64-65.

45) “우리는 大韓의 어린이,” 『조선일보』, 1954년 4월 13일.

다.⁴⁶⁾ 5월 8일자 『경향신문』은 ‘유쾌히 잘 지내고 있지요’라는 제목으로, 한 학생이 부모님과 선생님, 학우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6월 12일자 『경향신문』은 꼬마 음악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어린이들과 함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합동 음악공연을 펼쳤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어린이 음악사절단은 9개월간의 미국 순회공연을 마치고 미국 시민들로부터 약 2,200만 달러의 자금과 600상자의 의류품을 기증받아 7월 7일 귀국하였다. 귀국 당시 이들은 여의도 공원에서 서울시장, 한미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귀국 후 곧바로 경무대를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 내외를 예방하였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린이들의 노고를 칭찬하는 모습이 《대한뉴스》의 주요 장면으로 보도되었다. 7월 11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귀국 환영대회가 열렸는데, 이 환영대회 역시 《대한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 행사는 어린이를 상징적으로 내세워 냉전 시대의 한미 동맹 관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영화는 신문이나 TV 방송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매체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를 통해 정부의 선전 효과는 극대화되었다.

〈그림 4〉 ‘도미 어린이 합창단 귀국 환영대회’

《대한뉴스》 제43호, 1954년 8월 20일



물론 어린이 음악사절단의 방미 활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있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정부의 선전 정책 의도를 간파하고 “어린이 합창단은 왜 미국에 갔었던가”⁴⁷⁾라는 사실을 실었다. 이 사실에서는 어린이 음악단의 방미 목적에 대한

46) 이소라,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 74.

의문을 제기하며, 이 같은 활동이 진정한 구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정치적 선전이나 외교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어린이 음악사절단의 귀국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어린이 음악사절단의 성공적인 활동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1954년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어진 방미 기간 중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재단이 마련한 만찬회에서 연설하며 한국의 반공 정책을 미국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미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 연설에는 양국의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은 물론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해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었다.

귀국 시 그는 여의도 공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이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보도되었다.⁴⁷⁾ 열흘 뒤인 8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는 대통령의 귀국을 축하하는 대규모 환영대회가 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성과를 과시적으로 부각시키며 국민들에게 자신의 지도력과 통치 정당성을 강조하고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했다. 《대한뉴스》는 이 환영대회를 상세히 보도했다.

〈그림 5〉 ‘대통령 내외의 귀국’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환영대회’
《대한뉴스》 제44호, 1954년 8월 28일



47) “어린이 합창단은 왜 미국에 갔었던가,” 『조선일보』, 1954년 7월 10일.

48) 당시 『동아일보』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관저로 이동하는 과정까지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공항에서 어린이 음악사절단으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장면을 사진에 담았다. “더위 무릅쓰고 환영의 인파,” 『동아일보』, 1954년 8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수만 명의 인파 앞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정치를 수행하기 위해 우방 미국과 굳게 단결하여 공산주의와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⁴⁹⁾고 연설했다. 《대한뉴스》는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승만을 반공주의 지도자이자 자유 진영의 수호자로 각인시키고자 했다. 또한, 대규모 환영대회의 모습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통치 전략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 음악단의 미국 42개 도시 순회공연은 미국의 원조를 이끌어 낸 것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방미를 가능케 했다. 더욱이 이승만의 귀국 후 열린 환영대회는 그가 열렬히 환영받는 것으로 보도됨으로써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듯 어린이 음악사절단에 대한 《대한뉴스》의 서사는 결국 이승만으로 귀결되었는데, 이러한 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냉전체제 속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위계질서를 ‘자유세계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유도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승만의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재차 주입되었다.

2. 문화외교의 일환, 한동일의 미국 유학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부의 정책 선전을 위해 ‘선택’된 인물들이다. 1950년대 《대한뉴스》에서 자주 언급된 음악인은 한동일(1941-)이다. 당시 한동일은 이승만 정권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수행한 《대한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는데, 특히 그의 미국에서의 성공담은 국가정책과 미국의 공보 활동을 위한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에, 이 장에서는 한동일의 1950년대 행보 중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 1958년 일시 귀국하게 되는 상황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⁵⁰⁾

한동일은 배재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1954년, 미 제5공군사령관 새뮤얼 앤더

49)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승만 대통령 내외,” 《대한뉴스》 제44호, 1954년 8월 28일,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81&mediadtl=510&mediagbn=DH> [2024년 8월 20일 접속].

50) 한동일의 1950년대 음악적 행보 중에서, 《대한뉴스》는 1953년 ‘스웨덴으로 유학가는 천재 소년 음악가’에서 한동일을 처음 언급한 이후 1958년에 한국으로 금의환향하는 상황까지를 보도하고 있다.

슨(Samuel E. Anderson, 1906-1982) 증장의 도움으로 13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수학했다. 천재 음악 소년이었던 그의 미국 유학과 국제 콩쿠르 입상,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의 연주 활동은 여러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대한뉴스》에는 1953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연희초등학교 6학년의 이희춘⁵¹⁾이 배재중학교 1학년이었던 한동일과 함께 1953년 9월 23일 배재중학교 강당에서 유학을 떠나기 전 고별 연주회를 펼치고 있는 장면으로 소개되었다. 이 둘의 행보 중 1950년대 《대한뉴스》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한동일이다. 미국의 후원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된 배경과 그의 가족이 해방 후 남북 분할통치 시기 월남을 한 이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일의 이후 행보인 미국 유학, 미국 내 주요 콩쿠르에서의 입상과 우승, 카네기홀 데뷔, 미국 방송 출연,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그의 다양한 활동들은 국내 일간지의 주요 토픽 중 하나가 되었다.⁵²⁾

1957년에는 한동일이 미국에서 열린 음악경연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대한 기사에서 한동일은 “주한미군공군이 거출한 기금으로 미국에 간 젊은 한국의 피아니스트”⁵³⁾라는 문구로 소개되었다. 또한 “수많은 미국의 소년 소녀 피아니스트를 물리치고 2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한군 자신의 영예일 뿐 아니라 한국의 큰 자랑거리이다. [...] 피아노를 탄주하기 시작한 것은 다섯 살 때부터였으나 그해 해방이 되어 고향 함흥을 버리고 월남하느라고 연습이

51)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열린 제1회 이화경향콩쿠르에서 이희춘은 특상을, 한동일은 3등을 수상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희춘은 한국에 와 있던 스웨덴 장교 텍스트롱 씨에게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특별 후원회까지 조직되어 12세의 나이에 유학의 길에 오를 수 있었다. 이희춘은 후에 스웨덴의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니에서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했다. “스웨덴서 떨친 바이올리니스트 이희춘씨 14년 만에 귀국,” 『동아일보』, 1967년 9월 9일.

52) 국내 일간지들은 ‘한국이 낳은 소년 천재 피아니스트’라는 타이틀로 기사화했는데 한 예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5월 11일자 기사들은 한동일이 1956년 4월 28일 14세의 나이에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의 한 악장을 연주한 사실을 연달아 전하였다. 특히 1956년 5월 1일자 『조선일보』는 “카네기홀의 소년 피아니스트 한동일군, 그 영예 국가·민족의 이름을 빛내다. 더욱 건투있기를!”이라는 표현으로 그의 활동이 국가와 민족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는 기사를 냈다.

53) “한군, 결승에 출전 전미음악콩쿨대회,” 『경향신문』, 1957년 5월 14일.

중단되었으니 [...] 이 탁월한 재능을 전 주한 미 제5공군사령관 S. 앤더슨 중장이 알게 되어 도미 연찬의 길을 열게 하였다.”⁵⁴⁾라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한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드러난 한동일에 대한 서사는 1950년대 미국의 원조 하에 가능했던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적 연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그가 미군의 지원 덕분에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은 사실을 비롯하여, 이후 카네기홀 데뷔, 주요 콩쿠르에서의 성과, 방송 출연,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이 지속적으로 보도됐다. 특히 1956년 카네기홀에서의 협연을 통한 ‘국가와 민족의 이름을 빛낸 성취’⁵⁵⁾는 한동일을 ‘한국이 낳은 소년 천재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축하 또한 그의 국제적 성공을 더욱 강조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⁵⁶⁾ 1957년 미국에서 열린 음악경연대회에서의 준우승은 주한미군의 지원이 한국인의 재능을 세계무대에 소개하는 데 기여했음을 증명한 것처럼 여겨지게 했다.⁵⁷⁾ 이처럼 한동일의 성공은 매체의 보도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와 원조, 협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외교적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그의 가족이 월남한 이력 역시 매체에서 그가 부각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는데, 이는 그의 월남이 공산주의 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

IV. 195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10주년을 보도하는 국가의 태도

195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회고하는 《문화영화》와 《대한뉴스》를 다수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은 이승만의 업적과 동일시되었는데, 이는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던 경

54) “한국의 자랑 한동일,” 『경향신문』, 1957년 5월 17일.

55) 『조선일보』, 1956년 5월 1일.

56) 『조선일보』 5월 11일자 신문에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한동일에게 축전과 장미를 보냈다는 기사도 실렸다.

57) 1965년에 이르면 당시 미국의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 중 하나인 레벤티트 콩쿠르(Leventritt Competition)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향이 더욱 강화된 것이었다. 이승만의 이미지 강화와 함께, 냉전기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파가 1958년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음악관련 보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 되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1958년 음악관련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항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1958년 음악관련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리스트58)

《대한뉴스》				《문화영화》		
순번	호	제작연도	제목	순번	제작연도	제목
1	149	1958. 01. 28	한미 친선음악회	1	1958	교육 문화 (동남아 예술사절단 파견)
2	153	1958. 02. 25	예술인 장무대 예방	2	1958	광복절 노래 (정인보작사 윤용하작곡 임원시지휘 서울방송합창단노래)
3	153	1958. 02. 25	제2회 예술사절단 동남아시아로	3	1958	문화 (민간예술단 파견 및 공연 장면)
4	155	1958. 03. 11	병어리, 장님 음악회	4	1958	민속예술제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민속예술 경연대회)
5	157	1958. 03. 25	동남아 예술사절단 소식(사이공)	5	1958	아이스쇼 (미국 폴리데이 아이스쇼단)
6	158	1958. 04. 01	동남아 예술사절단 소식(방콕, 필리핀)	6	1958	우리 예술사절단 동남아로 (동남아시아 친선예술사절단)
7	159	1958. 04. 08	동남아 예술사절단 소식(홍콩)	7	1958	제3회 아세아올림픽 (일본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 경기대회)
8	159	1958. 04. 08	보통장 독주회	8	1958	3.1절 특보 (다양한 3.1절 기념행사들)
9	161	1958. 04. 22	예술사절단 지방순회	9	1958	순종황제 장례식 (1926년 순종황제의 빈전과 운구행렬 등)
10	161	1958. 04. 22	국악단 지방순회	10	1958	약진 10년: 교육, 문화, 국방 (동남아 예술사절단 파견)
11	164	1958. 05. 15	미 육군 군악대 연주회	11	1958	세계의 이모저모 (반 클라이번의 우승소식)
12	165	1958. 05. 22	제5회 어린이 음악콩쿨	12	1958	자유와 벗 타키 (친선의 밤 행사)
13	166	1958. 06. 03	해외소식 (반 클라이번)	13	1958	타키 국회의장 방한 (한국전통공연 관람)
14	167	1958. 06. 10	제3회 현충일 (유가족위로 국악연주회)			
15	170	1958. 06. 30	피아니스트 한동일 군 귀국			
16	171	1958. 07. 07	한동일 군을 인견			
17	178	1958. 08. 31	민중청공 추념식 (육군외대와군악대)			
18	183	1958. 10. 06	국군의 날 (군악대)			
19	184	1958. 10. 13	문화계 소식 (김자강독창회)			
20	185	1958. 10. 20	문화계 소식 (오페라 토스카 공연)			
21	186	1958. 10. 27	YMCA 창립 55주년 기념식			
22	189	1958. 11. 17	문화계 소식 (표창환의 행사, 숙영예대 예술제)			
23	194	1958. 12. 23	문화계 소식 (재외어린이음악회)			

《대한뉴스》에서는 한미친선음악회, 예술사절단 동남아시아 방문, 대한국악원 활동 양상, 미 육군군악대 공연, 어린이 음악콩쿠르, 반 클라이번 우승 소식과 카퍼레이드, 천재 소년 피아니스트 한동일의 귀국 및 연주회 소식 등이 등장하는데, 이 보도들에서는 반공과 한미 친선이 강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연결하여 보도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반공과 미국에 우호적인 태도가 음악회 소식을 빌려 상징적으로 전달되

58) 색상으로 구분된 항목들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다.

고 있는 것이다.

반면 1958년 《문화영화》에서는 민족의 의미를 강조하는 영상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광복절 노래’와 같은 노래 영상을 비롯해, 민속예술제와 복원된 순종 황제 장례식 등을 다루며 민족의 정체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대한뉴스》에서 두 차례나 다룬 동남아 예술사절단 소식을 ‘우리예술사절단 동남아로’라는 제목의 《문화영화》로도 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한국이 동남아시아 반공 국가들 사이에서 선봉에 서 있음을 강하게 인식시키고자 했다. 이렇듯 정부수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승만 정부는 민족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노래를 공표하고, 민속예술제, 순종황제장례식을 선보였다. 또한 반공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예술사절단의 활약상을 영상에 담았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항일 민족 지도자이자 반공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이미지로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승만 정권이 음악 관련 보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동일의 금의환향과 반 클라이번(Van Cliburn, 1934-2013)의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 사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음악이 어떻게 상징적 효과를 발휘하여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권의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냉전질서의 상징: 한동일의 금의환향과 반 클라이번의 카퍼레이드

1958년, 자유세계의 상징인 우방 미국에서 그들의 도움으로 공부하게 된 한동일이 드디어 귀국했다. 《대한뉴스》는 그의 귀국 상황을 영상에 담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정부가 한동일의 활약상을 국민에게 어떻게 전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다. ‘피아니스트 한동일 군 귀국’이라는 제목이 붙은 첫 영상은 미 공군 수송기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된다. 이는 냉전 시기 미국의 지속적인 원조와 협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다. 단순히 한 개인의 귀국을 넘어,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어 “우리 한국이 낳은 음악의 천재, 소년 피아니스트 한동일군이 6월 26일 김포공항에 도착 따뜻한 부모 형제의 영접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우방 미국에서 그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던 한동일군은 당분간 고국에 머물러 동포들과 유엔군을 위한 연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⁵⁹⁾라는 메시지가 전해진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

으로 인정받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유엔군을 위한 연주'라는 언급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미국의 영향력을 상기시켜 준다.

〈그림 6〉 《대한뉴스》 제170호, 1958년 6월 30일



1958년 7월 1일자 『경향신문』 사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했다.

[한동일]군은 동남 중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타고난 소질은 제대로 싹터 자라던 바 우연히도 오산 미공군기지 식당에서 보여준 묘기의 실머리가 일약 카네기홀이란 연주가로서는 누구나 한번은 데뷔하고 싶어 하는 그곳에서 영예의 진출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군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줄리어드 음악 학교에 입학한 후 로진 레빈 교수 밑에서 연마한지 불과 4년. [...] 마침내 군은 당당한 소년 문화사절격으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극동 지구에까지 행각은 뻗쳐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⁶⁰⁾

이처럼 그의 성취는 미국의 지원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외교적 성과로 여겨졌다. 이후 한동일이 이승만 대통령 내외를 예방하는 장면이 《대한뉴스》(제171호, 1958년 7월 7일)를 통해 보도되면서, 그의 이러한 성과가 이승만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영상은 곧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한동일의 독주회 장면으로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그가 미국에서 갈고닦은 실력이 고국에서도 입증되었음을 알린다.

59) “피아니스트 한동일 군 귀국,” 《대한뉴스》 제170호, 1958년 6월 30일,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106&mediatl=734&mediagbn=DH> [2024년 8월 20일 접속].

60) 이성삼, “한동일군의 귀국 공연에 붙여,” 『경향신문』, 1958년 7월 1일. 밑줄 필자 강조.

한편, 그가 미국 군부대의 후원으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만큼, 성공 이후 태평양지구의 미군들을 위해 순회공연을 다닌 양상도 자주 보도되었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5공군의 후원으로 워싱턴에 있는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공부했다. 동 제5공군은 다시 군이 미국 본토에서 음악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4천 6백불을 각금하였다.”⁶¹⁾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처럼 당시 매체들은 한동일의 성공을 미국의 지속적인 원조와 협력의 결과로 설명하며,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즉 냉전 질서에 있어서 미국의 지도력을 인정하며, 반공을 강조하는 정부 시책을 상징적으로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동일의 금의환향이라 요약할 수 있는 이 보도들은 1958년 반 클라이번의 우승 소식과 비교해 볼 만하다. 미국 텍사스 출신인 반 클라이번은 1958년 제1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함으로써 냉전 시대의 문화적 상징으로 떠올랐다. 당시 소련은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개최하여 문화적 우수성을 과시하고자 했지만, 이런 의도와는 달리 미국 출신의 젊은 피아니스트인 반 클라이번이 1등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즉 그의 우승은 미국의 문화적 우수성과 냉전시기 미국 중심의 신질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특히 반 클라이번에게 붙여진 ‘러시아를 정복한 텍사스 청년’이라는 별명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다. 이러한 반 클라이번의 우승 소식은 《대한뉴스》를 통해 국내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모스크바 국제 차이콥스키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입상을 차지하고 돌아와 전 미국에 새로운 화제를 던지고 있는 반 클라이번은 이곳 뉴욕 시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으로서 소련을 당당히 정복한 이 23살 된 텍사스 청년은 개선장군과도 같이 뉴욕 브로드웨이의 환영인파 속에 파묻혔습니다. 음악가로서 브로드웨이의 개선 행진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⁶²⁾

61) 『조선일보』, 1958년 10월 31일.

62) 《대한뉴스》 제166호, 1958년 6월 3일 “해외소식” 중 반 클라이번의 브로드웨이 시가행진. 밑줄 필자 강조.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90&mediadtl=597&mediagbn=DH> [2024년 8월 20일 접속].

브로드웨이에서 펼쳐진 카퍼레이드를 ‘개선행진’이라 표현하고 콩쿠르 우승을 ‘소련을 당당히 정복’했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보도는 냉전 정세에서 미국의 정치적, 문화적 승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 클라이번의 우승 사건을 한국에서 이렇게 보도했다는 것은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문화적 승리를 자국의 반공 및 친미 성향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문화영화》로도 제작되었다. 1958년의 해외소식을 다루는 《문화영화》에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미국의 아카데미상식, 미스유니버시티대회 등과 함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손을 흔들며 카퍼레이드를 펼치는 반 클라이번과 이에 환호하는 인파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내레이션을 “모스크바의 국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경연 대회에서 미국의 반 클라이번 군이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뉴욕 시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금년 스물세 살 된 텍사스 출신의 이 청년은 개선행진과도 같이 뉴욕시가의 인파 속에 파묻혀 기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⁶³⁾ 라고 전하고 있다.

〈그림 7〉 《대한뉴스》 제166호, 1958년 6월 3일(왼쪽),
《문화영화》 ‘세계의 이모저모’ 중 환영식 장면(오른쪽)



한동일의 금의환향과 반 클라이번의 콩쿠르 우승은 1950년대 냉전 시기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각각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동일의 성공은 한국인의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 중

63) “세계의 이모저모,” 《문화영화》 1958년,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w?mediasrcgbn=KV&mediaid=10453&mediadtl=22582&mediagbn=MH> [2024년 8월 20일 접속].

심의 신질서에 편입되어 있음을 강조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를 반영했으며, 반 클라이번의 우승은 냉전 시대 미국의 우위를 상징했다. 특히 한동일의 사례는 한국이 미국 중심의 질서 체계에 적극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입이 정치적 연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문화적 정체성과 국가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반 클라이번의 우승과 유사한 사건이 1974년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정명훈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입상한 것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 사건을 반 클라이번 못지않은 카퍼레이드와 기념식으로 홍보하며 조국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과시했다.⁶⁴⁾ 이처럼 국제적 수준에 이른 음악가들의 성취는 이승만 정권 이후 이어지는 여러 정권들에서도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위해 자주 상징적 표상으로 전유되었다.

2. 자주적 외교의 시도: 동남아 예술사절단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는 달리, 1950년대 후반의 《문화영화》와 《대한뉴스》는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예술사절단’의 활동, ‘아시아 민족 반공대회’와 같은 자주적 외교의 시도를 보여주는 《문화영화》들과 이를 보도하는 《대한뉴스》는 한국이 스스로의 문화적 독립성과 자긍심을 확립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남아 예술사절단의 활동을 기록한 영상들은 한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반공 국가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게 해 준다.


예술사절단은 1958년 2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 50여 일 동안 한국의 예술을 소개하고, 반공 국가 간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6개국을 순방하였다.⁶⁵⁾ 이들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홍콩, 대만, 오키나와에서 한국

64) 신혜승, “국가대표로서의 클래식 음악인들,” 『한반도의 국민음악』 (부천: 지금풍류, 2023), 276-277. 정명훈의 카퍼레이드는 《대한뉴스》 제992호(1974년 7월 20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영광을 조국에,” 《대한뉴스》,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900&mediadtl=6985&mediagn=DH> [2024년 8월 20일 접속].

65) 1957년에 있었던 1차 동남아시아 예술사절단 순방시 한국아세아반공연맹의 선전부장이었던 이덕하의 표현처럼, 동남아 예술사절단의 순방 목적은 반공 국가 간의 유대

의 민속무용 및 클래식 음악, 전시회 등을 선보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내에서 《대한뉴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도되었다. 《대한뉴스》에서 다룬 동남아 예술사절단 활동 관련 보도는 총 다섯 건으로, 시가행진과 공연 실황, 전시회 등에 대한 생생한 보도를 통해 한국 예술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영상 ‘우리 예술사절단 동남아로’는 예술사절단의 공연과 활동을 기록한 20분 51초 분량의 《문화영화》이다. 이는 《대한뉴스》 다섯 편을 종합한 것으로, 동남아시아 6개국을 순방하며 한국의 문화예술과 발전상을 선보인 예술사절단의 다채로운 활동을 담고 있다. 다음 <표 5>는 이 《문화영화》의 영상을 요약한 것이다.⁶⁶⁾

〈표 5〉 1958년 동남아시아 친선 예술사절단의 영상 요약

시간	화면	설명
0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공회관 앞에서 상행식 거행 •예술사절단은 공진항 단장을 비롯한 269명의 단원으로 구성 •공연, 국산품 전시, 한국 미술작품 전시, 반공 슬라이드 영사 등 예정
0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8년 2월 22일 인천항 •미 해군함 LST호를 타고 출항하는 장면
0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5일, 사이공 •태극기 휘날리는 해병의장대의 시가행진과 한국 해군의장대의 시범 훈련
0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남극장에서의 예술사절단 공연 •KBS교향악단의 연주 •이경숙의 독창에 이어 한복 입은 합창단의 노래

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에 맞서는 아시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이덕하, “젊은 힘의 결속, 예술사절단을 보내며,” 『경향신문』, 1957년 3월 9일; 허은 편, 『한국현대사 영상자료해제집 VII』 (서울: 선인, 2017), 83.

66) “우리예술단 동남아로,” 《문화영화》 1958년,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10409&mediadtl=22427&mediagbn=MH> [2024년 8월 20일 접속].

시간	화면	설명
05:34		•김백봉의 장고춤과 여성들의 검무
09:22		• 3월 12일, 태국 방콕 •문화관에서 한국참전동기회 주최로 열린 예술사절단 공연 •KBS교향악단의 연주와 독창, 합창, 고전무용 등
09:56		•문화관에서 한국 미술품 전시회 개최
10:49		•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용사들을 기념하는 충훈탑 참배
12:27		• 3월 22일, 필리핀 마닐라 •로레타 공원에서 해병의장대의 시가행진 •반공투사 故라몬 막사이사이 대통령의 묘, 무명전사의 탑 방문
13:31		•한국 현대미술 전시회 개최
13:44		•마닐라 극동대학 강당에서 열린 예술사절단의 공연 •KBS교향악단의 연주와 독창, 합창 •여성들의 검무
15:33		• 3월 28일, 홍콩 •홍콩대학 강당에서 열린 예술사절단 공연 •이남수 지휘로 아리랑 등 민족 정서가 흐르는 합창 •김백봉의 장고춤
16:54		• 4월 3일, 자유중국[대만] •시가지에서 행진하는 해병의장대의 모습

시간	화면	설명
17: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 입법원 공연장에서의 KBS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공연 •김백봉의 부채춤
1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원 의장 내에서, 약진하는 한국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
1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시 화평동로 자리 잡은 사범대학 강당 •실내악의 '한국이 서린 곡목' 연주
18: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ST호 선내에서 식기, 인형, 축제공품 등 국산품 전시 •한국의 상품을 관람하는 대만 관객들 •한국 산업의 약진상 알림
1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8일, 오키나와 •오키나와 타임즈 전시장에서의 사진 전시회 •약진 대한민국의 발전상 소개
1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온 클럽 극장에서 열린 예술사절단 공연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다분히 풍기는 합창, 교향악단의 연주, 한국무용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14일, 인천항에 상륙 •오후 2시부터 인천 부두 함상에서 사절단의 환영식 거행 •만세삼창으로 마무리

이처럼, 이 《문화영화》는 동남아시아 친선 예술사절단의 활동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예술사절단의 활동은 각국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대체로 해군 의장대의 시가행진으로 시작해 반공 기념탑 참배, 각국 주요 인사의 관저에서의 공연, 미술품 전시회 개최, 그리고 각국의 공식 공연장에서 진행된 메인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메인 공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대규모 교향악단의 연주와 합창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족음

악 및 민족무용이었다. 이러한 공연 구성에 대해 김희선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규모 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서구의 교향악 연주는 자유 반공아시아 지역에 ‘선진화되고 문명화된’ 신생 반공국가 대한민국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 ‘반공’ 무용가 김백봉의 독무 〈부채춤〉, 〈검무〉, 송범의 〈출진〉, 〈사타의 춤〉, 조용자의 〈장고무〉, 〈화랑〉 [...] 이 때 민족무용은 한국적 ‘민족성’을 즉각적으로 표상한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식민지 근대화의 산물인 신무용이었다. [...] 민족성의 전시를 위해 선진화된 서양 교향악을 배치한 것은 당대 지배층 지식 엘리트들이 식민시기부터 내면화한 서구적 문명화를 향한 의지인 동시에 전통 문화에 대한 ‘고급 대 저급’, ‘문명 대 미개’의 진화론적 이분법의 시선의 모순적 시선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⁶⁷⁾

공연과 전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요소를 아우르며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부채춤, 검무, 장고춤 등은 ‘식민지 근대화의 산물인 신무용’이긴 하지만 민족무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현지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전시에서는 한국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선보였다.

예술사절단의 활동을 통해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문화적 독립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아시아반공연맹 국가 간의 문화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종속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아시아 반공 국가들 사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공 인사 기념탑 참배와 같은 행사는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공통된 반공 이념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미 해군함을 통해 순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화영화》는 미국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한국의 자주적 외교 활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중점에

67) 김희선, “문화 냉전 시기 남북한 민족예술의 경합: 1950-70년대 해외 공연을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61 (2021), 194-195. 1957년 4월 3일부터 14일간에 걸친 1차 사절단의 공연을 분석한 김희선의 이 논문을 통해 2차 사절단의 공연 구성이 1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두고 보도했다. 이는 당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남아시아에서 독자적인 반공 외교를 펼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승만 정권은 친미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정책에서는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복합적인 외교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V. 맺음말: 미국 중심의 위계적 문화질서 수립

본 연구는 1950년대 정부 정책의 주요 선전매체였던 《대한뉴스》와 《문화영화》가 음악과 관련된 인물과 사건을 통해 국가 이념을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하려 했는지를 분석했다. 이 시기의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 반공 이념을 중심으로 한 냉전 질서 속에서 국가재건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는 정부의 정책과 이념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매체가 음악 관련 보도를 통해 국가 이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어린이 음악사절단의 방미 활동은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 냉전 질서 강화를 위한 선전 전략의 일환이었다. 《대한뉴스》는 이승만 정부와 한미재단이 추진한 이러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의 단결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어린이 음악사절단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였고, 대중은 이를 통해 특정 이념을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킬 수 있었다.

둘째, 서양음악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성과는 국가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때, 성공한 음악가들은 예술가로서뿐 아니라 국가 이념의 구현자로서도 기능하였으며, 이는 서구 중심의 문화 질서에 대한 순응을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성공한 음악가들의 활약은 정부의 정책을 상징적으로 홍보하며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 한동일은 미국 유학을 통해 서양음악을 본격적으로 익힌 후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한국의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표적 인물로, 스웨덴으로 유학갔던 이희춘과는 달리 《대한뉴스》에 자주 등장했다. 그의 성공은 미국 중심의 문화 질

서를 추종하는 국가정책의 성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되었다.

셋째, 1958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 미국의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의 뉴욕 브로드웨이에서의 카퍼레이드는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통해 냉전 시대 미국의 문화적 우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도되었으며, 한국 사회에서 미국 중심의 반공 연대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의 우승 퍼레이드는 개선장군의 개선 행진으로 묘사되면서 대중의 인식과 정서를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넷째, 동남아시아 예술사절단의 활동은 국가 이념의 전파와 자주적 외교의 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동남아시아 예술사절단의 활동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과 전시를 통해, 또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반공에 대한 역사를 기리는 여러 기념 행사들을 통해 그들과의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는 이에 대한 보도에서 미국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한국의 자주적 외교 활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한국이 미국 중심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아시아 내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1950년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음악 관련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음악을 통한 상징적 홍보가 대중의 정서와 인식을 형성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국가정체성에 대한 감정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전 전략은 국가정책의 표면적인 내용 이상으로 특정 이념과 정책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원조’, ‘미국 유학’, ‘국위선양’, ‘금의환향’, ‘개선 행진’ 등 때마디의 슬로건이 음악과 결부되면서 만들어진 문화적 메시지는 국가의 이념적 목표와 정치적 메시지에서 전환되어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이끌었다.

미국과 아시아 반공 국가들과의 통합, 즉 상상적 세계의 통합은 내부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제와 외부적인 의존성이 상호 작용하면서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문화 질서의 수립으로 귀결되었다.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음악 관련 보도들을 통해 1950년대 국민들은 냉전체제 속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위계질서를 자유세계 통합이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일도록 유도되었다. 이와

같이 상상적 세계 통합은 냉전 질서하에서 미국의 정치적, 문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그 위계질서 내에서 비공산주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통합의 형태였다.

한글검색어: 대한뉴스, 문화영화, 음악적 프로파간다, 반공, 이승만, 한미재단, 어린이 음악사절단, 한동일, 반 클라이번, 동남아시아 예술사절단

영어검색어: Newsreel, Daehan News, Culture Film, Musical Propaganda, Anti-communism, Syngman Rhee, American-Korean Foundation, Children's Music Delegation, Tong-il Han, Van Cliburn, Southeast Asian Artistic Delegation

참고문헌

- 권보드래.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1950-196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연쇄와 한국.” 『아세아연구』 54/2 (2011): 246-288.
- 권은혜. “냉전시대 글로벌 미국 가정 만들기: 1950년대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 『서양사론』 159 (2023): 9-36.
- 김려실. “댄스, 부채춤, USIS 영화; 문화냉전과 1950년대 USIS의 문화공보.” 『현대문학의 연구』 49 (2013): 341-375.
- 김미란. “문화 냉전기 한국 펜과 국제 문화 교류.” 『상허학보』 41 (2014): 329-370.
- 김민수. “1950년대 민속악계의 공연활동 고찰: 대한국악원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7 (2016): 145-186.
- _____. “1950년대 국악계의 동향: 국립국악원과 대한국악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57 (2019): 51-78.
- 김복순. “냉전 미학의 서사욕망과 대중감성의 젠더: 해방 후~1950년대까지의 신문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7 (2012): 107-145.
- 김승. “남북한 선전영화의 이미지 재현 전략 비교연구: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2018): 364-371.
- 김은영. “1960-1970년대 음악정치: 박정희체제의 음악정책과 노래운동을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60 (2020): 87-118.
- _____. “냉전시기 음악연구의 현황과 전망.” 『음악과 현실』 61 (2021): 145-185.
- _____. “해방 10년, 음악계의 구성과 존재 방식.” 『음악과 현실』 63 (2022): 165-208.
- _____. “해방 후 음악장(場)의 형성과 나운영의 자리.” 『음악과 현실』 65 (2023): 37-74.
- 김희선. “문화냉전기 국가 프로파간다와 공연예술: 1960-70년대 리틀엔젤스 활동의 국제정치학.” 『음악과 문화』 40 (2019): 143-183.
- _____. “문화냉전기 미국의 아시아음악연구와 1960년대 국악의 국제화.” 『이화음악논집』 23/3 (2019): 121-164.
- _____. “문화 냉전 시기 남북한 민족예술의 경합: 1950-70년대 해외 공연을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61 (2021): 187-239.

- _____. “리틀엔젤스예술단의 합창활동과 합창레퍼토리 연구.” 『음악과 현실』 64 (2022): 205-266.
- 김희진. “즐거움과 국가: 1950년대 음악 교과서에 담긴 국가주의.” 『음악과 현실』 51 (2016): 57-182.
- 마정미. “제3공화국 프로파간다에 관한 역사적 고찰: 1960년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중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7/4 (2014): 99-121.
- 박선영. “1960년대 초 국립영화제작소의 ‘문화’와 ‘영화’: 군사정권의 공보정책과 문화영화.” 『이화사학연구』 54 (2017): 311-344.
- _____. “1960년대 문화영화 정책과 그 방향.” 『역사연구』 38 (2020): 85-117.
- 박연희. “미군 심리전과 ‘잔류’의 냉전 서사: 모운숙의 한국전쟁 수기와 영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5 (2021): 307-343.
- _____. “제29차 도쿄 국제펜대회(1957)와 냉전문화사적 의미와 지평: 1950년대 후반 미국 문화원조와 동서문화교류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9 (2018): 189-220.
- 변재란. “대한뉴스, 문화영화, 근대적 기획으로서의 ‘가족계획’.” 『영화연구』 52 (2009): 207-235.
- 손호철.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한국전쟁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5/1 (1996): 41-79.
- 송지호.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책과 도자공예: 1960~1970년대 ‘대한뉴스’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도예연구』 27 (2018): 191-222.
- 송현민. “박정희 정권의 금지곡을 둘러싼 ‘감시와 처벌’.” 『문화과학』 73 (2013): 273-293.
- 송화숙. “박정희의 국가 근대화 프로젝트와 음악.” 『음악사연구』 1 (2012): 167-204.
- 신혜승. “국가대표로서의 클래식 음악인들.” 『한반도의 국민음악』, 259-284. 부천: 지금풍류, 2023.
- 신혜주. “1950년대 민족주의 담론과 전통음악: 제1공화국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63 (2019): 121-150.
- 심재겸. “국민을 위한 노래: 해방 이후 국민가요운동의 전개와 국민 주체의 음악적 구상.” 『대중음악』 18 (2016): 100-157.
- 심혜경. “1960년대 문화영화와 젠더, 그리고 가족-국가.” 『현대영화연구』 31

- (2018): 69-105.
- 염찬희. “1950년대 영화의 작동방식과 냉전문화의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29 (2006): 195-221.
-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1960년대 문화영화의 지역 재현과 지역의 지방화.” 『대중서사연구』 24 (2010): 337-364.
- 유소울, 정재완. “1950~70년대 <대한뉴스> 타이포그래피의 성격.” 『기초조형학연구』 101 (2020): 383-403.
- 이동기, 박종민. “대국민 정부 PR의 시대별 특성 연구: 1953년에서 1994년까지 <대한뉴스> 보도내용 분석.” 『한국 언론학보』 55/2 (2011): 312-313.
-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39 (2015): 221-276.
- _____. “한미재단(American Korean Foundation), 냉전과 한미 하방연대.” 『한국학연구』 43 (2016): 205-260.
- 이상준. “아시아재단의 영화프로젝트와 1950년대 아시아의 문화냉전.” 『한국학연구』 48 (2018): 49-84.
- 이소라.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순진. “한국전쟁 후 냉전의 논리와 식민지 기억의 재구성: 1950년대 문화영화에서 구축된 이승만 서사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3 (2010): 70-105.
- 이원지. “<대한뉴스> 선전정책의 언어적 전략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지원. “냉전과 분단시대 한국의 어린이 인권 인식: 1950년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중심으로.” 『학림』 52 (2023): 261-298.
- 이하나. “정부수립기~1950년대 문화영화와 국가정체성.” 『역사와 현실』 74 (2009): 519-557.
- _____. “1960년대 문화영화의 선전 전략.” 『한국근현대사연구』 52 (2010): 145-180.
- 조준형.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정: 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52 (2014): 365-399.
- 차재영. “냉전기 미국의 공공외교와 국가-언론 협력 관계: 미국무성의 ‘공동후원 언론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3 (2013): 87-108.

- _____, 염찬희.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의 기록영화와 미국의 이미지 구축.” 『한국 언론학보』 56/1 (2012): 235-263.
- 최유준. “‘세련된’ 음악의 탄생: 1950년~1960년대 클래식 장르의 감정 정치.” 『이화음악논집』 23/4 (2019): 117-148.
- 최진석. “한국 문화냉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인문과학』 89 (2023): 45-81.
- 함충범. “1960년대 초 한국 뉴스영화와 문화영화에 관한 연구(1961~1963): 국립영화제작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57 (2014): 183-208.
- 허은 편. 『한국현대사 영상자료해제집 I, VII』. 서울: 선인, 2017.
- 홍민지. “뉴스영화를 통한 국가의 이미지 형성과 선전활동: 1950~1960년대 <대한뉴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홍순애. “국제적 냉전체제 하 반공주의의 연성화와 ‘스파이’ 담론의 대중화 전략: 1950년대 『아리랑』 잡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96 (2023): 347-374.
- Barnhisel, Greg. *Cold War Modernists: Art, Literature, and American Cultural Diplom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 Frost, Jennifer. “Cinema as Cultural Diplomacy and the Cold War: U.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behind the Iron Curtain, 1959-1971.” *Journal of Cold War Studies* 25/1 (2023): 75-100.
- Klein, Christina.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신문자료]

- “뉴스, 문화영화 반드시 상영.” 『동아일보』, 1959년 4월 3일.
- “뉴스영화의 날 제정 일반엔 무료 공개.” 『경향신문』, 1959년 4월 13일.
- “대인기의 한동일군.” 『조선일보』, 1956년 5월 11일.
- “대통령에 감사서한 피아니스트 한군.” 『조선일보』, 1956년 5월 11일.
- “대한뉴스 내일 종영.” 『동아일보』, 1994년 12월 30일.
- “‘대한뉴스’ 사라진다.” 『한겨레』, 1994년 12월 31일.
- “대한뉴스 폐지 새해부터… 49년 만에.” 『경향신문』, 1994년 12월 30일.
- “대한뉴스, 이름 바꾸고 계몽 필름으로 제작.” 『경향신문』, 1980년 2월 29일.

- “대한뉴스-문화영화 폐지.” 『조선일보』, 1994년 8월 20일.
- “더위 무릅쓰고 환영의 인파.” 『동아일보』, 1954년 8월 14일.
- “미공군장관 제임스 H 다글라스씨로부터.” 『조선일보』, 1958년 10월 31일.
- “미국서 절찬 천재소년 한동일군.” 『경향신문』, 1956년 5월 11일.
- “미국음악가들 내한, 화려해질 악단.” 『동아일보』, 1955년 5월 3일.
- “스웨덴서 떨친 바이올리니스트 이희춘씨 14년 만에 귀국.” 『동아일보』, 1967년 9월 9일.
- “어린이 합창단은 왜 미국에 갔었던가.” 『조선일보』, 1954년 7월 10일.
- “연내에 통합실현.” 『동아일보』, 1949년 1월 11일.
- “우리는 大韓의 어린이.” 『조선일보』, 1954년 4월 13일.
- 이성삼. “한동일군의 귀국 공연에 붙여.” 『경향신문』, 1958년 7월 1일.
- “제작비는 선거자금, 영화 「청년이승만」.” 『경향신문』, 1960년 5월 18일.
- “八面鋒(팔면봉).” 『조선일보』, 1956년 5월 1일.
- “한국의 자랑 한동일.” 『경향신문』, 1957년 5월 17일.
- “한군, 결승에 출전 전미음악콩쿨대회.” 『경향신문』, 1957년 5월 14일.
- “한동일군의 태연한 모습.” 『동아일보』, 1956년 5월 11일.

[웹사이트]

- 국가기록원. “우리나라 현대사의 성실한 기록자, 대한뉴스,”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koreaNews.do> [2024년 8월 12일 접속].
- 《대한뉴스》, https://www.ehistory.go.kr/koreanews/korea_news [2024년 8월 20일 접속].
- 《문화영화》, <https://theme.archives.go.kr/next/movie/viewMovieList.do> [2024년 8월 20일 접속].
-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https://theme.archives.go.kr/next/movie/times.do> [2024년 8월 13일 접속].
-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https://theme.archives.go.kr/next/movie/movieConcept01.do> [2024년 8월 12일 접속].
-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승만 대통령 내외,” 《대한뉴스》 제44호, 1954년 8월 28일.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

- mediaid=81&mediadt=510&mediagbn=DH [2024년 8월 20일 접속].
- “세계의 이모저모.” 《문화영화》 1958년,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10453&mediadt=22582&mediagbn=MH> [2024년 8월 20일 접속].
- “아세아 민족 반공박람회.” 《대한뉴스》 제110호, 1957년 4월 25일,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544&mediadt=2966&mediagbn=DH> [2024년 8월 13일 접속].
- “우리 예술단 동남아로.” 《문화영화》 1958년,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10409&mediadt=22427&mediagbn=MH> [2024년 8월 20일 접속].
- “이 영광을 조국에.” 《대한뉴스》 제992호, 1974년 7월 20일,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900&mediadt=6985&mediagbn=DH> [2024년 8월 20일 접속].
- “제3회 국립미술전람회.” 《대한뉴스》 제49호, 1954년 11월 8일,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93&mediadt=993&mediagbn=DH> [2024년 8월 13일 접속].
- “제5차 아시아 민족 반공대회.” 《문화영화》 1959년,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10434&mediadt=22459&mediagbn=MH> [2024년 8월 13일 접속].
- “피아니스트 한동일 군 귀국.” 《대한뉴스》 제170호, 1958년 6월 30일,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106&mediadt=734&mediagbn=DH> [2024년 8월 20일 접속].
- 한국근현대영상아카이브, [http://kfilm.khistory.org/?mod=prod&PATTEN_CLASS=&KIND_&sort=left\(MOVIE.PROD_DATE,4\)&orderby=asc&recnum=20&keyw=&PROD_DATE=1950](http://kfilm.khistory.org/?mod=prod&PATTEN_CLASS=&KIND_&sort=left(MOVIE.PROD_DATE,4)&orderby=asc&recnum=20&keyw=&PROD_DATE=1950) [2024년 8월 20일 접속].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7190> [2024년 8월 7일 접속].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528> [2024년 8월 20일 접속].
- “해외소식.” 《대한뉴스》 제166호, 1958년 6월 3일,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90&mediadt=597&mediagbn=DH>

bn=DH [2024년 8월 20일 접속].

https://www.ehistory.go.kr/koreanews/korea_news [2024년 8월 10일 접속].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1811071407001> [2024년 8월 24일 접속].

<https://www.youtube.com/watch?v=fFexiGeQf98> [2024년 8월 20일 접속].

국문초록

1950년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가 만들어낸 음악적 프로파간다, ‘상상적 세계 통합’

신 혜 승

본 논문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통해 이승만 정권의 ‘일민주의’와 미국의 ‘상상적 세계 통합’ 전략이 냉전 시기 한국에서 국가 이데올로기의 확산 및 프로파간다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주요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 국가 주도로 제작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선전과 계몽의 양상을 음악 관련 보도 양상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이들 매체는 국가의 이념과 정책을 대중의 의식 속에 효과적으로 주입하는 프로파간다 도구로 기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양음악을 배경으로 한 인물이나 단체들의 국제적 활동, 즉 어린이 음악사절단의 미국 순회공연, 피아니스트 한동일의 미국 유학, 미국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Van Cliburn)의 국제 콩쿠르 우승과 카퍼레이드 같은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예술사절단의 공연은 자주적 문화외교 전략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1950년대 한국의 국가정체성 재구성 과정 및 냉전 시대의 역학을 조명하고,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파 방식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Abstract

Musical Propaganda in 1950s Korean Newsreel, 'Global Imaginary of Integration'

Shin, Hye Seung

This study analyzes how the ideology of 'Ilminism' [One Peopleism] promoted by the Syngman Rhee regime and the United States' strategy of 'global imaginary of integration' contributed to the dissemination of state ideology and propaganda in Korea during the Cold War, as reflected through the media of *Daehan News* and *Culture Film*. The primary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propaganda and educational aspects of *Daehan News* and *Culture Film*, which were produced under state auspices in the 1950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lens of music-related reporting. After the Korean War, these media served as effective propaganda tools for instilling the state's ideology and policies into the public consciousness. To substantiate this, the study focuses on international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ith a background in Western music, analyzing specific cases such as the American tour of the Children's Music Delegation, pianist Tong-il Han's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victory of American pianist Van Cliburn along with the accompanying car parade. Additionally, the performance of the Southeast Asian Art Delegation is presented as a symbolic case representing a strategy of autonomous cultural diplomacy. This research seeks to illuminate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national identity in 1950s Korea and the dynamics of the Cold War era, while providing significant insights into the mechanisms of propagating state ideology

1950년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가 만들어낸 음악적 프로파간다 113

and the role of media.

[논문투고일: 2024. 09. 01]

[논문심사일: 2024. 09. 19]

[게재확정일: 2024. 09. 23]